

2017년 12월 27일, 한림읍 강구리 강구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
양신생(여, 1941년생 한림읍 강구리)

- 줄거리: 옛날에 귀가 잘 안 들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. 하루는 시아버지가 말을 몰 먹이러 가다가 길 지나는 사람이 길을 물었는데 엉뚱하게 말을 안 판다고 하였다. 그것을 집에 와 며느리에게 말했더니, 며느리는 항아리뚜껑이 깨진 것을 말하는 줄 알고 화를 냈다.

[제보자] 옛날에 메뉴리는 귀 막고, 시아방하고 둘이가 사는데. 옛날엔 장독을 이렇게 장독대에 그 저 장테 행 덩지, 장테라고 허지. 장항 뚜껑을, 이렇게 덩으고 행 사는 시절이었었는데. 그 하르부지도 귀 막고 메뉴리도 귀 막았는데, 하르부지가 몰, 말 몰 멕이레 갔는데 길 지나가는 사름이 길 물으라고

“하르부지.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요?”

허난, 하르부지는

“이 말 안 풀아요.”

또 재차 물었어.

“하르부지. 이 길 어데 가요?”

“이 몰 안 푼 데니깐.”

귀가 막으니깐 통과 안 뚤 온 거지. 집에 와서 메뉴리 보고

“어떻 낄이 이상헌 낄이다. 이 몰 안 풀켄 헤도 막 질 넘어가는 사름이 몰 풀렌 허는 사름만 잇어라.”

경 허난, 또 메뉴리는 귀가 막은 거지. 시아방은 그 말 헨 거지. 자기는 아마 그 장뚜껑 그 장테를 벌러난 기억이 잇인 모양이라. 메뉴리 허는 말은

“아이고, 아버지는 어느 옛날에 장테 벌른 거 가정 지금??지 그 말만 험우과?”
그런 말도 들어보고. (웃음)

- 핵심어: 귀, 메뉴리(며느리), 시아방(시아버지), 몰(말), 길, 장항, 장테(장태), 장독